

2019학년도 1학기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성평등위원회 오픈세미나

2019.05.09. 18:30

서울캠퍼스 100주년기념관 B601호

1부: (강연) 버닝썬으로 읽는 (여)성거래산업의 정상화 / 약 90분

황유나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질의응답 / 약 30분

쉬는시간 10분

2부: (발제) 여성의 '주체적' 대상화 / 약 20분

이현수 (성평등위원회 학술국)

Floor Talking / 약 30분

- 꾸밈노동을 강요당했던 경험 공유하기
- 대중문화 속 '주체적 꾸밈' 컨셉
- 이제는 사라져야 할 '핑크 택스(Pink Tax)'
- 여성이 '대상'이 아닌 '주체'로써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 B601호 강의실에는 경사로가 없습니다. 휠체어 전용구역은 맨 뒷줄 오른쪽입니다.

※ 수어통역을 지원해드리지 못합니다. 청각장애 학우 분께서는 강연 시작 전에 말씀해주시면
속기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학우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Floor talking 발제 - 여성의 '주체적' 대상화

서울캠퍼스 성평등위원회 학술국 이현수

분명히 우리 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꾸밈노동 강요와 여성 대상화, 상품화가 존재한다. 한편 우리는 누군가의 강요나 금전적인 이유가 없어도 꾸밈노동을 수행하고, 스스로를 성적 대상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언뜻 주체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여성주의적으로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여성 대상화는 여성 개인의 자기정체화 이전부터 존재한다. 여성 개인이 살아감에 있어 이러한 대상화의 영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Ray Langton이 주장한 바와 같이 여성을 몸으로, 외모로 격하하고, 침묵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대상화의 영향 아래 놓이는 것이다.

대상화는 단지 여성 개인의 밖에서 여성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재화되어 여성의 삶 전반을 지배하게 된다. 여성은 대상화된 시선을 내재화하면서 스스로를 남성적 시선으로 응시한다. 이때 여성은 대상화의 대상이자, (능동성을 잃은) 주체가 된다.¹⁾ 이렇게 스스로를 대상화하게 된 여성의 내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여성에게 섭식장애²⁾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며³⁾, 자기 몸을 주체성을 잃은 상품이자 성적 대상으로 인식시키고⁴⁾ 스스로의 몸에 대한 수치심을 일으킨다.⁵⁾ 스스로를 성적 대상화하는데 따르는 이러한 영향의 발로로서 여성은 앞서 언급한 '밖에서-안으로'의 대상화와 반대로 '안에서-밖으로' 대상화된 시선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내재화된 시선은 여러 방식으로 표출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회가 지정하는 여성상을 수행하며 스스로를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대표적으로 클럽문화는 그러한 여성상을 잘 수행하는 여성들에게 '인기'를 쥐어주며 이들이 마치 (남성들의 성적 대상이 됨으로써) 어떤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인다. 반대로 남성들에게는 성적 대상화된 여성들을 보여주며, 남성 고객들이 성적 주체로서 성적 대상인 이들 여성들을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⁶⁾ 또한 대상화는 사람을 비자발적, 도구적 존재로 격하하므로, 이를 내재화한 여성의 삶 역시 수동적이고 도구적인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는 여성 스스로나 주변인들이나 그 당사자를 도구적이고 비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재화된 시선은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그들의 자기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John Berger, *Ways of Seeing*, 1972: 이수안의 《여성학논집》 제26집 제1호 〈여성 몸 이미지의 전 형과 내면화 과정의 시각 체계적 상호작용〉 (2009)에서 재인용

2) 선안남, 〈자기 대상화, 신체 수치심이 여대생의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3) 손은정, 〈대상화 경험이 여성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06

4) 이선옥, 〈대중문화의 성상품화와 인권〉, 《아시아여성연구》, 2003

5) Bartky S. L., Foucault, femininity, and the modernization of patriarchal power, *Feminism and Foucault: Reflections on resistance*: 이희진의 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여고생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섭식행동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매개효과〉 (2011)에서 재인용

6) 숙명여자대학교 FEMI-POWER PROJECT, "쫓 달리면 강간해도 되는 장소, 클럽", 2019

여성 대상화는 한번 사회에 나타나면 단발적인 시선의 영향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안에서 확대 재생산된다. 즉 성적 대상화된 자기표현은 스스로의 '여성성'을 성적 대상으로 격하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사회에서 이는 다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도록 독해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대상화'로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먼저 '핑크 택스'를 살펴보자. 사회는 이미 임금격차와 안전 비용으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여성들에게, 성적 대상화를 위한 꾸밈비용에 핑크 택스까지 더하여 징수해 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원천이 되는 자본을 빼앗는 것이다. 때로는 이를 위해 여성의 사회생활을 위협하거나, 꾸밈비용과 핑크 택스를 웃도는 권력을 쥐어줄 것처럼 호도하기도 한다. 또한 대상화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까지 영향을 미친다. Davies 등과 Fredrickson 등의 각각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여성 대상화에 노출된 학생들은 유의미한 수학(數學)능력 저하를 보인다.⁷⁾ 앞서 말한 대상화의 정신적 영향 역시 여성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다. 요컨대 스스로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그 1차적인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상화는 사회 전체에 공기처럼 스며있기에 삶에서 그 영향력을 지워낼 수는 없다. 따라서 대상화의 영향력 밖에 있는 온전한 내 취향, 온전한 내 선호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 스스로를 대상화하는 그 시선의 주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서 사는 방법이 여성주의의 의제이자 목표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자유를 넘어 내 삶의 주체가 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하려 한다.

참고문헌

- Fredrickson, B. L., & Roberts, T.,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No. 21, vol. 2, 1997
- Peggy Orenstein, *Cinderella ate my daughter*, 2012

Floor Talking 논의폭지

- ▶ 꾸밈노동을 강요당했던 경험 공유하기
- ▶ 아이돌산업과(아이돌산업의?) '주체적 꾸밈' 컨셉
- ▶ 남성에게 '승인', '인정'받으려고 했던 경험 공유하기
- ▶ 이제는 사라져야 할 '핑크 택스(Pink Tax)'

7) Davies et al., *Consuming images*, Fredrickson et al., *The swimsuit becomes you*, Peggy Orenstein의 *Cinderella ate my daughter* (2012)에서 재인용